

정영덕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잘사는 · 풍요로운 · 희망이 샘솟는 무안” 건설



정영덕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선 승리를 원동력으로 5월 1일 오후 2시 무안읍 사무소에서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개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민주당 무안군 선거 출마자 등과 정영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실에 몰렸고, 미처 선거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한 지지자들이 건물 밖과 인근에 운집하는 등 정영덕 후보에 대한 무안군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줬다.

특히 정영덕 후보가 승강기가 없는 3층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개소식에 모시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으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히려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쁜 숨을 쉬면서 3층까지 걸어 올라와서 정영덕 후보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제! 꼭 군수 돼서 군수실 구경 좀 시켜주소”라고 말하는 등 정영덕 후보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줬다.

이개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정영덕 후보와 저는 전남도청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영덕 후보는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분야에서 거의 학자 수준이고 교수 수준으로 경쟁을 할 사람이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개호 위원장은 “정영덕은 의리 있는 사람이다”며, “지난 2년 전 이

당원 · 지지자 1000여명 응원 속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경선 승리 원동력으로 군수 당선 위해 군민에 더 가까이
이개호 위원장 “정영덕 후보는 실력과 의리 있는 사람”



곳에서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떠날 때 민주당을 굳건히 지키며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영덕은 진정 무안을 무안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발전



의 호기를 맞고 있는 무안을 알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무안을 발전시킬 사람이다 즉 실력과 의리 그리고 무안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정영덕 무안군노인회 회장은 “정영덕 후보는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훌륭한 분으로 우리고향 무안을 잊지 않고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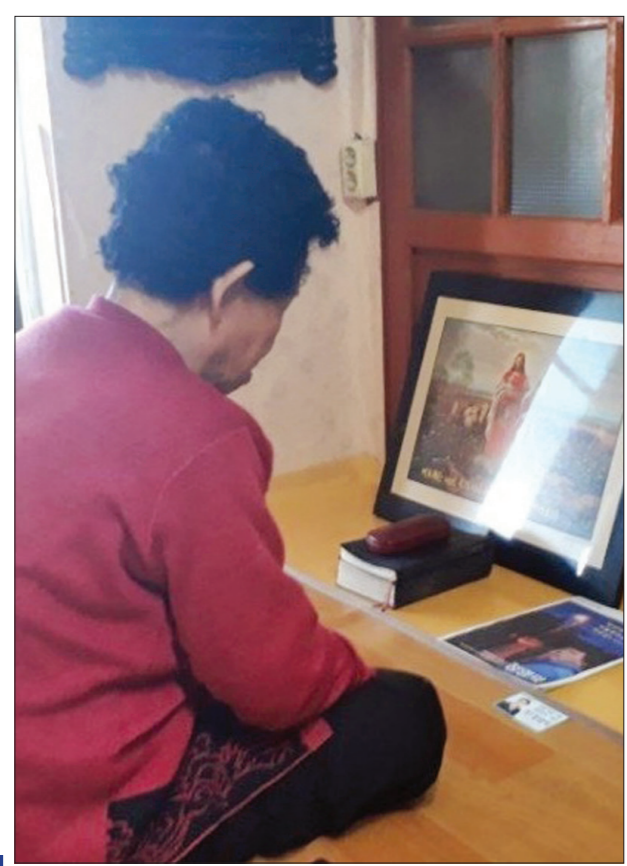
동분서주하는 지역 일꾼이다”고 칭찬했다.

정영덕 후보는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개소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또한 저와 경선을 치른 세 분의 후보자들의 이름다운 동행에도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덕 후보는 “선거 과정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것이며 군수에 당선되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오직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8만 군민께 약속드린다”며,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린 무안을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경험과 그리고 비전으로 ‘잘사는 무안, 풍요로운 무안, 희망이 샘솟는 무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민행대표기자

무안군민이 생각하는 정영덕



82세 양나월 권사 ‘정영덕’ 위해 9년간 기도
8대 공약 중 노인공경 크게 다뤄...9년간 문안 살피

무안군 일로읍 상산리에 거주하시는 올해 82세 양나월 권사는 9년 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영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나월 권사 아드님에 말에 의하면 “지금쯤은 어머니께서 정영덕 후보가 이번에 꼭 지역 군민을 대표하는 큰 봉사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나월 권사와 정영덕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와의 인연은 지난 9년 전으로 올라간다.

정영덕 후보는 당시 전남도청 공무원을 퇴직하고, 전남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비오는 어느 날 회산백련지 앞에서 양 권사는 자신이 입었던 비옷을 당신보다 더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주고 온 몸이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정영덕 후보는 양나월 할머니를 보고 비에 젖은 머리와 옷을 수건으로 닦아 드리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라고 묻자, 양나월 할머니는 “머느리 생일에 돈을 부치러 우체국에 간다”고 말씀하여 우체국까지 태워 준 것이 인연이 됐다.

정영덕 후보는 양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자신은 00교회 권사라고 소개한 후 “지금 정 후보가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때 정 후보는 ‘기도’라고 답했는데 그 후 지금까지 9년간 양 권사는 새벽과 저녁 하루 두 차례 정영덕 후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정영덕 군수후보가 내세운 8대 공약 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차도 분리, 독거노인을 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공간 조성, 고독사 예방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영덕 후보는 공약에서도 노인공경

을 크게 다뤘다.

실제로 정영덕 후보는 지난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양나월 할머니를 찾아서 안부를 확인했고, 항상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멀리 떨어진 부산에 있는 양나월 할머니 외아들이 명절 때 집으로 와서 양나월 할머니로부터 정영덕 후보의 따뜻한 보살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아들과 정영덕 후보는 할머니 집에서 만나 형제처럼 지내시라는 할머니의 부탁으로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양나월 할머니 아들은 최근 SNS를 통해 정영덕 후보에게 감사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 양 권사님이 9년 전 처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기도 제목이 정 의원님의 건강과 주민에게 사랑받고 군정일무를 보시는 데 부족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무안군 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매우 고맙다고 하시면서 더욱 노력하시어 이번에 꼭 지역 군민을 대표하는 큰 봉사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행대표기자